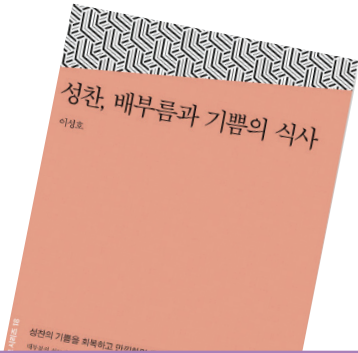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80
2024.2.25.

오늘의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4-15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6-7 | 청소년사역원 학원선교부 | 10 | 교회사용설명서 / 교회말 |
| 3 |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 8 | (사)섬김과나눔 성탄헌금보고 | 11 | 십자말씀이 |
| 4-5 | 청소년숲 겨울연합수련회 | 9 | 성도의 글 | 12 | 공동체 소식 |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두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모아집니다.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향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6면과 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⑩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대위임령 자체도 오직 혹은 주로 선포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즉시 그와 같은 제자 삼기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셨다.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는 데 삼 년을 보내셨다. 그것은 삶과 태도, 행위, 신뢰, 용서, 사랑, 관대함, 예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파격적인 행동에 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포함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한다.

이 책의 순서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신자로서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무엇인가?

-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인간으로서 여기에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열방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백성이 되도록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받는다.
- 우리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부름받는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구속의 역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해야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우리의 예배와 증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결같은 충성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수단을 요구한다. 말해야 할 사실이 있다.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말해야 할 확언과 진리 주장, 경고와 도전, 발표와 호소가 있다. 우리는 성경이 말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를 언급할 때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사용한다. 증거하다와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가 그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선교 역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살아 계신 한 분 참 하나님인신 아웨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그 종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선교의 핵심이다. 또한, 그 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수많은 신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펼치는 세상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언하는 역할이 그들이 선택받은 핵심이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도록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종 역할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 당연히 따른다. 그리고 증거의 사명은 종의 섬김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의 종,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상의 종으로 행해야 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행 26:16)

종과 증인. 이 두 단어는 우리 자신의 선교를 실천하는 일에도 적절하며, 급진적이고 예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증거를 하는 목적이 아웨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열방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증인들 자신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증거하는 행위는 증인들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앞에서 해야 하는 증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사야 43:10b~12에서 아웨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주장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 아웨만이 초월적인 영원한 하나님이다.
- 아웨만이 역사를 통제하는 주권자이다.
- 아웨만이 구원자이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증언해야 하는 아웨에 관한 위대한 진리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 주권, 구원하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살아 계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분을 열방은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도들의 주요한 특권과 책임 중 하나는 이 땅에서의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사도 사역을 시작할 때 목적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제시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은 적이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은 어디서 끝났는가? 물론 성경이다! 신약 문서는 그 기원과 진정성을 그 같은 최초 목격자들에게서 찾는다. 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증거 활동은 성경에 근거하기에, 그 문서의 신뢰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누가는 자신이 그런 목격담의 출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 보았으니 우리가 믿는 것의 확실성에 신뢰를 가져도 된다고 말한다.(눅 1:1~4)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증거는 성경의 신뢰성에 의존한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증거하는 선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증거 활동은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 참됨이 입증된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들의 말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최초의 증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세대를 거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계속되는 특권과 책임임을 보게 된다.

요약

인류 열방이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 구원 사역을 증거하도록 부름받는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선택받은 근본 이유이며, 하나님의 종 됨의 의미 일부이다. 증거하는 일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인 자신의 믿음과 이해를 강화한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말로 하는 증언, 곧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옹호하며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이다.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성찬부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교회를 교회되게, 증인을 증인되게 하는 본질

대부분의 성도가 성찬의 유래와 의미,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예식같은데도 왜 그런지는 별로 들은 적이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니 성찬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합니다. 부디 이 책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 성찬의 기쁨을 회복하고 만끽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식사 :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

창조 기사에서 우리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를 맛보아 알길 원하셨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즉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복 중 하나입니다.

만나 : 광야교회가 누린 하늘의 양식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성찬을 시행하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비로소 성찬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유월절 식사 : 영원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는다면, 그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을 집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 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본질이고, 신약 교회는 성찬을 통해 유월절 식사를 지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에 속한 식사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식사다

성찬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영적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새 양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잔치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보혈을 흘려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기에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 실재적 임재설 : 성령의 놀라운 사역

칼뱅의 성찬에 대한 풍성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의 놀라운 사역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성찬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몸 : 육체적, 신비적, 성례전적 몸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교회)은 그리스도의 성례전적 몸(떡)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피와 살)을 먹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몸은 입으로 눈에 보이는 떡을 먹을 뿐입니다. 성찬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유사하게 우리 영혼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먹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며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성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찬의 네 가지 예전 행위

성찬은 들어, 축사하고, 떼어(부어), 나눠주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분명

은 떡을 떼는 것이고 배병은 회중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분잔 역시 포도주를 붓는 것이고 배잔은 회중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떡을 들어 구별하는 것,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 떡을 떼고 잔을 붓는 것, 그것을 회중에게 나눠주는 것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찬을 풍성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적 요소들

성찬이 천국 잔치라는 것을 알고 설교와 강의, 성경공부를 통해 이런 사실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각각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집례자가 성찬식 사이사이에 간단히 떡과 포도주의 이 같은 차이를 짚어준다면,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각각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찢김과 흘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 제사임을 증거합니다. 성찬식에 이런 요소를 반영한다면 성찬의 의미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배의 주체는 삼위일체다.

성찬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예배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Opus Dei)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성찬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예배 중에 이루어지므로 예배의 각 요소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 성찬의 올바른 자리매김

성찬과 설교의 관계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본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였습니다.

세례와 성찬

성찬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례와 성찬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세례는 수세자에게 십자가를 통한 죄씻음을 확신하게 하며, 성찬은 수찬자에게 십자가를 통한 영적 배부름과 기쁨을 확신하게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세속화와 성찬의 중요성

예배에서 설교가 '들리는' 거룩성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보이는' 거룩성입니다. 가시적이라는 점에서 성찬은 세속 사회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확보하여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찬의 문제점은 형식보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성찬에 대해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들어야 합니다. 잔치를 베풀 주인과 잔치에 참여한 손님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기쁨의 온전한 회복은 성찬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줄함울 / 성찬,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 이성호, 좋은씨앗

청소년숲
2024년 겨울연합수련회

가치놀자 1419, Peace Makers!

청소년숲 겨울연합수련회가 2024년 1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주님의교회 및 외부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2024년 청소년숲 겨울수련회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로 교회를 거점으로, 5개의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평화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가치 잘 노는 사람들,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리며, 평화가 무엇인지, Peace Maker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기간 동안, 청소년숲 가족들은 기관을 방문하기 전, 팀별로 모여(평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서로를 알아가고, 기관에 대해 배우고, 봉사와 섬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둘째 날, 청소년숲 모든 가족들이 Peace Maker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5개의 기관으로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나님의 선교를 몸소 경험하기 위해 방문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사인임팩트 : 내면의 빛을 세상의 빛으로! (나, 너 지구와 사이좋게) : 교회



2. 밥퍼공동체 :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한끼! : 청량리



3. 오픈아이즈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다! : 복촌



4. 사랑쉼터의집 :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놀이테! : 상일동



5. 테스트웍스 : 내가 바로 AI 인공지능데이터 컬렉터!(폭우피해 막아볼까?) : 송파구 이곳저곳



기관에 다녀온 청소년숲 가족들은, 피스 콘서트 예배 속, ‘기둥을 옮기는 시간’이란 이름으로 기관에 다녀온 이야기와 소감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나 중심’의 가치관과 삶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평화의 삶’으로 기둥(중심)이 옮겨지는 공동체의 경험이 이어졌고,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방문한 기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우는, Peace Maker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였다.



2024년! Peace Makers, 평화를 전하고 나누고 세우는 청소년숲 모든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시간들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샬롬!



청소년숲
2024년 겨울연합수련회

Peace Makers의 고백

솔직히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수련회 가는 시간이 조금 아까웠고 재미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수련회를 마치니 정말 즐겁게 놀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놀고 예배한 시간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박3일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저는 기관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밥퍼 활동을 했었습니다. 힘들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배식, 재료 손질, 정리, 설거지 등 다양한 일들을 조원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같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활동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올 때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에는 뿌듯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저는 수련회 곳곳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들어주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앞으로 저는 자신만 생각하면서 조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발맞춰 걸어가며 같이 놀고, 같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여진 / 고등부 1학년**

66

마지막날 저녁 예배에서 '나'보다 '너와 우리'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Peace Maker'라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와 목적을 잊고 마냥 놀러 온 것처럼 지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편한 일이나 재미있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다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곧 새로운 환경에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때때로 마주하고 비들마다 스스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경재윤 / 중등부 1학년**

66

제가 선택했던 기관은 테스트웍스였습니다. 그동안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태연하게 지나갔던 빗물받이들이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빗물받이를 깨끗이 청소하며 빗물받이의 제 기능을 알고 열심히 봉사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이 저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바로 '나'중심의 세상에서 자연의 세상, 다른 이웃을 향한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활동 이후의 나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의 나보다

다 조금 더 타인을 바라볼 수 있고 자연을 눈에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내 안에서만 찾으려 노력하고 갈망했던 '평화'가 더 넓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잘 아끼고 보존하며 더 성장한 우리가 되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준 / 고등부 2학년**

66

제가 원래 생각하던 평화는 단순히 다투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저에게 평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치놀자 1419, 피스 메이커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 프로그램들 덕분에 평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픈아이즈 체험 덕분입니다. 오픈 아이즈 체험은 캄캄한 곳에서 오직 내 옆 사람들과 길을 알려주시는 로드 마스터님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잠시 체험을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섭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드 마스터님께서 그것 이 편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없으니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착각을 없애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 부정적 견해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맬 때 제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알려주신 로드 마스터님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 진실 된 빛과 평화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홍예은 / 중등부 2학년

66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갔을 때, 바닷가에 천막치고 권사님들께서 큰 통에 밥, 국 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수련회가 어른이 되어서 기억이 날거라 믿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그렇게 앉아서 공던지기, 달리기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가치놀자1419, Peace Makers! 나, 너, 우리,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샤인임팩트, 테스트웍스, 사랑 쉼터의 집, 밥퍼 공동체, 오픈 아이즈, 또 개인 텀블러 사용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희 조는 사랑 쉼터의 집을 방문했는데, 우리 주님의교회 청소년들이 장애인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얘기했구요. 자기 빛도 선물한 예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께서 이름을 물어보며 내일 또 오라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옥희 집사 / 중등부 교사**

부임인사

청소년들과 함께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고등부를 섬기게 된 김지원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교회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살 한 교회의 청소년 부서 교사로 섬기면서 사역자의 길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훈련받을 것이 참으로 많지만 계속된 주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여 만난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배우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청소년들과 같이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교회 사역자로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김지원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라는 가치가 절대 헛되지 않게 기도와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날 영혼과 맡겨 될 사역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전도사 /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학원선교부

학원선교 이야기

이야기 하나

여러 곳에 강의와 집회, 세미나를 다녔지만 이번 ‘학원 선교 세미나’(23.12.8)는 나에게 특별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 담당목사의 강의 요청으로 갔던 날, 모든 대상은 어머니들, 여성이었다. 강사인 나와 찬양 인도했던 전도사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 모임은 정신학원(정신여중, 정신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들의 섬김 모임이다. 즉, ‘기도 어머니’라고 이름하여, 정신여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1년 월 1회, 총 7-8회 성경수업 시간에 만남을 갖는다. 한 명의 어머니가 4-5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도어머니 멘토’의 역할을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 ‘사랑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정신여중 2, 3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인성훈련과 복음 제시 수업(키링 만들기)을 진행하는 것이며, 한 명의 어머니가 4-5명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다.

선교사님이 세우신 기독교학교라 하여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가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건학 이념에 따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해마다 전통으로 세워가고, 또한 모두 여학생들이기에 어머니로서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영성과 인성, 덕성 등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양육하는데 매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이 섬김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주님의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귀하게 여겨졌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들과 잠시 나눈 대화에서는 어머니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힘들었는데, 안아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났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졸업을 하고도 엄마라고 부르며, 연락이 오고,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살피니까 아이들 마음을 주님이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무지 많아요. 정신의 딸이 모두 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오늘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는 이미지가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그 형상이 정신의 모든 딸들에게 대물림 될 줄 믿습니다. 참 귀한 사역,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미나를 통해 홀로 영광 받고 계셨다. 참으로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섬김에 내 마음도 포근한 엄마의 품 안에 있는 듯 한 시간이

었다. **최관하 목사** / ‘더작은재단’ 스콜처치임팩트 대표, 주님사랑교회 청소년청년교회 담당목사

이야기 둘

같은 겨자씨 집사님을 통해 기도어머니 사역을 알게 되어 봉사한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위한 세미나를 듣고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보다 더 많이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떨리는 가운데 첫 수업을 하고 나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기도어머니 수업을 기대하고 눈을 반짝이며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잘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부담은 되었지만, 그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고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마음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고3을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고2 아이들을 맡았던 지난 몇 년 간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진지하고 더 차분했습니다. 입시에 지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와 앉아 있었는데 즐거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기대감이 별로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중보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진정으로 기도에 힘써주는 기도어머니가 되어야겠구나.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수능을 보고 학기는 끝나갔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마무리하던 마지막 날, 아이들이 써준 편지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며 저에게 적어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도어머니를 하며 아이들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고, 큰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업을 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기도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올해도 새로이 만날 아이들을 위해 미리 기도합니다.

김혜림 집사 / 기도어머니

이야기 셋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하고, 천사 같은 학생들을 기도어머니 멘토 수업을 통해 만납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해 많이 불안해합니다.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인 '나와 우리'를 위한~
2024년 학원선교부 교육세미나

강사: 방윤주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학교수
모동교회 청소년부 교육목사
목회상담사 전문가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목회상담협회 대외협력위원 부위원장
놀이심리상담사2급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과 PH.D

2월22일(목)
나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 인간애착과 관계

2월29일(목)
나는 왜 기도생활이 어려울까?
- 하나님애착과 기도

오전 10:30 ~ 12:30 / 3층 소년부실



기도어머니 멘토 수업을 통해 활동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다름을 이해하며 인정해 주면서 다양한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꿈과 용기를 주며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 쓰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그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조금씩 주님과 연합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치 있고 귀한 사역에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영모 집사 / 기도어머니

이야기 넷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예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니 1년 동안 어머니 수업을 통해 하나님도 뵈고 위로도 받았는데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무교라서 처음에 수업했을 때는 조금 당황했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어머니 수업을 열른 받고 싶어서 어머니 수업하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기도’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논술시험을 봤는데 논술시험 보기 전날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드렸는데 시험을 보면서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평안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었어요. 비록 제가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어머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수업은 오늘로 마무리되겠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 주시고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2월 학원선교 세미나 안내 문자가 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기도어머니 딸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3월을 준비한다. 위에 편지는 2년 전 만났던 정신여고 기도 어머니 딸이 마지막 수업 때 전해 준 것이다. 꽤 긴 시간 동안 기도 어머니로 섬겨 오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여 주심에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 이 딸의 편지를 통해 받은 감동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올 한 해도 정신여고 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저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신기숙 권사 / 기도어머니

이야기 다섯

학원선교에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생명 중 정신여중에 다니며 인성이라는 수업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복음 제사를 통해 더욱 알아가

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중2 때 만난 친구들 정신여고에 가서도 기도어머니 수업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여 청년부에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여중 학생들과 정신여고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당에서 예배드림을 보며 감동과 감사가 넘칩니다. 학생들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희들도 오히려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만날 학생들을 기다리며 주님 예배한 생명들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도구이며,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며 나아갑니다. “가라 정신학원으로”

장현주 권사 / 사랑어머니

이야기 여섯

성경의 역사 속에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정신학원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고 만드셨습니다. 주님의교회는 맡겨주신 정신학원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학원 선교부의 100여명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신학원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학원이 하나님의 학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을 배출해 내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60여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에 감염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에 감사하며 기도로 섬겼습니다. 육체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시대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병든 육체만이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파하는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라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의 모든 딸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영선 권사 / 기도어머니



(사)섬김과나눔

2023년 성탄절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결과

(사)섬김과나눔이 12월 10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개최하여 캠페인 후원금은 주님의교회 성탄절 헌금으로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6회 후원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000만원을 성탄절 헌금에서 후원받고 (사)섬김과나눔의 예산 1,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행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사)섬김과나눔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상위계층 등 이웃돕기 지원

교구추천 14명, 장애우 33명, 사랑나무 5명, 청년부 6명, 너나들이(탈북청년) 17명, 미자립교회 21개 등 96명에게 30~5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상자 제작 지원(기아대책 협력)

거여·마천 독거어르신 136개, 송파교육복지센터 60개, 특별지원대상

자 24개, 교회 장애우 및 탈북청년, 청년부, 만나겨자씨 등 85개, 광야의 교회 11개, 우리들학교 35개, 송파구가족센터 28개, 한빛청소년재단 20개, 1사1다자녀가정 1개 등 총 희망상자 400개(2,00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웃돕기 공모사업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농아인협회 송파지회, 송파구가족센터, 송파노인복지센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송파교육복지센터,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송파신아지원주거센터(김장김치) 등 총 16개 복지기관(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원금(기부금)접수 안내

(사)섬김과나눔 사업에 후원을 원하는 분은 후원금 납부 전용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 필히 후원자 성명기재)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SC은행 204-20-51877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최희은 공익부장 / (사)섬김과나눔



성도의 글

만일 나에게 회심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거듭남과 회심을 기억하는 일

이것은 제가 가끔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나에게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저는 정확히 40년 전 22세 때 일어났던 거듭남과 회심의 때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거듭남과 회심은 40년 전의 일이었지만, 제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결정적인 사실이었기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의 삶에 수많은 변화와 굴곡이 있었지만, 삶이 의미와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당시의 거듭남과 회심을 기억하면서 저는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으며, 상처 입은 마음에 안식을 얻고, 살아갈 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을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거듭남과 회심의 자리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만일 그때 저에게 거듭남과 회심이 없었더라면...”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찔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삶을 포기하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1학년 시절,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답을 얻고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지만, 3년 동안 전심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끝도 없는 방황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저는 “오늘 진리를 발견하면 내일 죽어도 좋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수년간 방황하고 절망한 끝에 정신과 육체가 너무나 피폐해져 삶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한 지 약 3년이 지나 절망의 상태에 있을 당시에 저는 군 생활 중이었는데, 고충 상담 중에 친구약 성경을 10번만 읽고 오라는 육군 중령이셨던 사령부 목사님의 권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삶을 이미 포기한 상태라 진리를 찾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로 성경 말씀을 통독해 가던 도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 친구약 말씀을 한번 정독하고, 신약 말씀을 두 번째 읽어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우쳐 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값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저의 전 존재와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으며, 모든 것이 얼마나 새롭고 기뻐던지 발에 숨겨진 보배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보배를 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는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 같

은 만족감과 환희의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는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셨으며,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저의 심령이 날로 변화되어 갔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이 단번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어갔습니다. 그 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성경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때까지 혼돈 속에 있던 저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저의 옛 본성을 따라 살기도 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저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과 욕망에 따라 살곤 할 때마다, 멈추어 서서 거듭남과 회심의 때를 돌이켜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재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의 여정에서 거듭남과 회심보다 더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듭남과 회심이 지금도 저의 전 존재와 매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단순히 추억거리로써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그 당시의 벅찬 감격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과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거듭남과 회심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저의 거듭남과 회심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남과 회심을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주님의 발아래 내려놓게 하고, 저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편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고 유월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거듭남과 회심을 저 자신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을 성만찬을 통해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때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사람을 입은 자임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서병운** 안수집사

교회사용설명서⑦

사무국 사용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사무국은 교회의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 행정·회계·재정·건물·전기·전산·방송·보안·미화·디자인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청되는 상근 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에 따라 이렇게 상근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행정실’, ‘지원실’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이렇게 상근 직원이 소속된 부서를 ‘사무국’이라고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따로 <사무국 운영규정>을 두어 업무와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교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두고 각 업무부서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의 행정사무 업무는 당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기장로가 지휘 감독합니다. 다만 경리 관련 업무는 재정장로의 지시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서무·재정·교역자실·목양실·디자인·음향·영상·전산·시설물관리·미화 등의 업무 부서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 업무 효율을 위해 서무팀(서무, 재정, 교역자실, 목양실, 시설물관리, 미화)과 미디어팀(디자인, 음향, 영상, 전산)으로 구분하여 선임자를 팀장으로 두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

사무국의 주 사무실은 주님의교회 본당인 대강당 로비 정면 오른쪽 실만한물가 쪽 복도를 따라 들어가서 중간 현관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바로 복사기와 컴퓨터가 있는 교인 사용 공간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봉헌을 계수하는 계수실이 있습니다. 왼쪽 유리문 안쪽에 사무국이 있으며, 복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에 들어서면 앞쪽 왼쪽부터 서무간사 한 분, 재정간사 두 분이 교인을 맞아주십니다. 서무간사는 인사관리와 문서관리를 담당하며, 재정간사는 재산관리와 사무회계를 담당합니다. 그 뒤에 사무국장 한

분, 그리고 창가 쪽으로 서기장로와 재정장로가 사무국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든 이곳에서 물어보시면, 모두가 친절하게(정말 친절하십니다!)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층 사무실에 있지 않은 사무국 간사 가운데 교역자실·목양실 담당 간사는 4층, 디자인·음향·영상·전산 간사는 5층, 시설물관리·미화 간사는 지하1층에 전담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전임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인들께서 홈페이지 등 교인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1층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사무국 소속의 상근 직원들은 주님의교회가 직장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교회 인사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특성상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을 해야 하고, 예배가 있는 주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인이 월요일에 교회에 오시면 필요한 행정 사무를 보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교회는 또한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근 직원을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하여, 오늘 현재 17명인 간사들이 1만 명에 이르는 주님의교회 모든 교인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1층 사무국에 들렀는데 대응이 때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각 층에 있는 방과 화장실의 휴지통을 비우는데도 때로 손이 못 따라갈 때도 없지 않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간사 여러분의 노고를 이해해 주세요!

함글함글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장례와 관련된 말

소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작고했을 때 “소천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천은 일반적으로 ‘하늘로 부름’이라는 뜻으로 인식하고 쓰는데, 그렇다면 “소천을 받았다고”라고 해야겠지요. 누구나 아는 표현으로 “별세하셨습니다”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상을 갔을 때나 조화를 보낼 때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보다는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은 어두운 저승세계에서 복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는 영원무궁한 나라에서의 삶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고인을 위해 기도할 필요없이 오직 유족에 대한 위로만 할 일이지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결식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부활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별식’이나 ‘장례예식’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거부감이 있는 듯 합니다.

추도식(추도예배)

유교식 제사를 대체한 기독교인 가정의 추모 의식을 ‘추도식’이나 ‘추도예배’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추도’라는 말은 애도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 죽음을 천국행으로 여기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추모식’이라는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반영하는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삼우제

전통 제례에서 장사 지낸 후 3일째 되는 날을 삼우제로 지냅니다. 흔히들 ‘삼오제’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3일째 되는 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처음으로 묘소를 살피기 위해 갑니다. 그러므로 ‘삼우제’라는 말 대신 ‘첫 성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망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부르는 말인 미망인은 ‘마땅히 따라 죽었어야 하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써오던 이 말은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부인’이나 ‘유족’ 등으로 바꿔 표현해야 합니다. 함글함글 /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이복규, 새물결플러스) 참고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이사야 편

이번 호는 <이사야> 편입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기원전 7세기 무렵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담은 예언서로, 뛰어난 문학적 기법과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479호 아가 편 정답

어	찌		침		향	기	로	운	술
여		백	향	목		등			람
쁘		합		자	주		속		미
고	벨	화					한	번	
				화	반	석		홍	
	아	마	나			류		화	창
구			도	장			내		포
슬		수	풀			엔	게	디	
퀘				유	향			르	
미	끄	럽	게		기	름		사	슬

가로 힌트

1. 유다의 12대 왕. 20살에 왕위에 올라 16년 재위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등 악정을 펼쳤다. (사 1:1)
5. '바구니' 라는 뜻으로, 옛 유다 지역에서 대개 곡식의 양을 재던 부피 단위. 22리터 정도의 양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라는 상황에서 '너무 오버하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속어이기도 하다. (사 5:10)
7.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 드고아 출신 선지자와 동명이인이며, 그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사 2:1)
8.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산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괴물. 2010년 10월 방한, 주님의교회를 방문했던 유니온신학교 총장 브라이언 볼런트 목사의 설교 <미래를 기억하라>에서는 이 괴물을 용으로 묘사했다. (사 27:1)
9.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대화. 죄의 회개일 수도 있고, 소망의 고백과 헌신의 각오일 수도 있다. (사 1:15)
10. '여호와와 구원' 이라는 뜻으로, 아모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썼다. (사 8:3)
11. 함의 아들이 거하던 지역. 애굽 남쪽에 있었으며, 지금의 이디오피아와는 다르지만 성경에서 때로 '에디오피아'로 표기되기도 했다. 패딩 속에 들어가는 거위의 털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사 18:1)
12. 햇빛이 어떤 것에 가려지면서 생기는 공간. 여름에는 이곳이 시원하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 이라는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사 4:6)
13. 요단의 저지대에 있던 성읍.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다. (사 13:19)
15. 어떤 것의 명칭.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내가 그의 ○○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로 시작한다. (사 4:1)
16. 헤스본 북동쪽에 있는 고산 지대에 있는 성읍.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다. (사 15:4)
19. 경이롭고 비범한 사람.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록했다. (사 9:6)
21.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수님이 선한 이곳 사람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다. (사 8:4)
22. 토기를 만드는 사람. '토기' 는 진흙으로 빚은 그릇으로, 질그릇을 말한다. (사 64:8)
23. 요술을 부리는 사람.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대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 3:3)

세로 힌트

2. 이사야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름붙였다. (사 7:3)
3. 부모가 돌아가신 후의 자식.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이렇게 불렀다. (사 10:2)
4. 남유다의 13대 왕. 29년 동안 재위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신당을 없앴으며, 기혼 샘에서 실로암에 이르는 터널로 된 수로를 뚫었다. (사 36:22)
6. '남쪽의 땅' 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의 북쪽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사 11:11)
10. 아굽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 아굽이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불려진 이름에서 기원했다. (사 66:20)
11.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상징적으로는 죽어서 내려갈 곳, 또는 음부를 의미하기도 했다. (사 51:1)
12. 풀이나 나무를 베고 남은, 뿌리와 이어진 부위. '등갈' 이라고도 한다. (사 6:13)
14. 요단 평지에 있던 모압의 성읍. 롯이 소돔의 심판을 피해 도망간 곳이다. (사 15:5)
17.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의 아버지. '르말랴'라고도 한다. (사 8:6)
18. 앗수르에게 멸망 당한 성읍. 행복하기를 거부했다가 멸망되었으며, 이사야가 멸망한 도시의 사례로 들었다. (사 37:12)
20.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대개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사 28:7)
21. 어떤 것과 다른 것 가운데 있는 공간. 때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 22:11)

제5기 세움학당

개강 : 3월 16일(토) 오후 6시
장소 : 주님의교회 소예배실(1층)

상반기 일정

일정	교육내용	강사
3월 16일	‘기독교교육’ 바로 알기	장순애 교수(영남신대)
3월 23일	‘다음세대 예배 오답노트’ 다시쓰기	신형섭 교수(장신대)
3월 30일	‘성경’ 함축적 이해	이대혁 목사(주님의교회)
4월 13일	‘교육과정’ 바로 알기	안정도 교수(장신대)
4월 20일	교수 – 학습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원석 교수(장신대)
4월 27일	상담가로서의 신앙교사	이상억 교수(장신대)
5월 11일	신앙교사의 성경적 자기 관리	황바울 목사(주님의교회)
5월 18일	신앙교사의 예배	이종성 목사(주님의교회)
5월 25일	신앙교사와 영성	주선영 목사(칠곡교회)
6월 1일	신앙교사의 지도력	정구민 목사(주님의교회)



2024 봄학기 양육 클래스

3.12(화) ~ 5.19(주일)

	About 주기도문 사도신경	차승천 목사 (010-7544-3945)
 YouTube 온라인		
 오프라인	화 오전 10:30 신앙의 기초 세우기II 수 오전 10:30 성경적 재정 교육 오후 2:00 성경 함께 읽기(사가서)	한시경 목사 (010-4822-4523) 한국청지기야카데미 (스마트 강의 12명 정원) 문인: 윤경수 목사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금 오전 10:30 오후 2:00 오후 8:00	하나님 나라 생활백서 사막교부들과 수도원 운동 사도행전 정독(바울의 하-님의 선교) 詩와 그림이 있는 구약 산책 금요일에 시간 아껴요?	황바울 목사 (010-3657-0421) 박주영 목사 (010-3347-0339)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배윤환 목사 (010-3138-2622)
* 6월 개강 예정	종교개혁지 탐방	한시경 목사 (010-4822-4523) * 추후 주도의 개편으로자랑만 신청지로 변경가능하다



신청기간 2.25 (주일) ~ 3.10 (주일)

신청방법 A. 각 강좌 담당 목사에게 문자로 신청
 B. 교회 홈페이지 -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문의 윤경수 목사(010-9407-3709)





2024 봄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3 / 8 (금) 8PM ~ 9(토) 12PM

소망수양관 (경기도 광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 에베소서 6:18 -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목장 : 백은현 목사

(대전 한빛교회 담임목사)
50년 기도학교 및 전역 기도캠프를 다스리셨던
학력 및 경력
원광대학교 신학과 / 전주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연남신학대학원 목회지도과정
세계교로스터 대륙 (미국 CTS)영문학사상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 대한성경학회
대한기독교문화연구원 / CTI총무실 간담

저서
기도학교 · 50가지 기도의 영적 훈련(두란노) 외 다매

시간	내용	담당자	참조
19:00 ~ 20:00	저녁식사		강의실1
20:00 ~ 20:20	찬양	이흥성 목사	
20:20 ~ 20:25	교역자 특송	교구담당 목사	
20:20 ~ 21:00	기도회	김화숙 담당목사	
21:00 ~ 21:20	말씀	이흥성 목사	
21:35 ~ 22:35	코아노비아 공동체	교구담당 목사	
22:35 ~ 22:40	광고	이흥성 목사	

시간	내용	담당자	참조
6:30 ~ 7:30	가상 및 개인파티		강의실1
7:30 ~ 8:30	아침식사		
8:30 ~ 9:30	교구별 모임 (각 장소)	교구담당 목사	
10:00 ~ 10:10	찬양	이흥성 목사	
10:10 ~ 11:40	전날	백은현 목사 대한한글감공회	
11:40 ~ 12:00	광고 및 퇴식 준비	이흥성 목사	
12:00 ~ 13:00	식사		

교회일정

2/25(주일)	사순절2
3/3(주일)	사순절3
3/6(수)	5교구 연합수요기도회
3/8-9(금-토)	상반기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3/9(토)	어와나 1학기 오프닝,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3/10(주일)	사순절4, 양육클래스 개강, 정기당회
3/13(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1학기 개강
3/16(토)	세움학당 개강

알립니다

1.윤희주 장로 초청집회

일시 2/25(주일) 오후 4:00

장소 중예배실(지하)

주관 안수집사회

문의 임정식 안수집사(010.6242.5868)

2.입교 및 세례교육

접수 1층 안내데스크

대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성도

교육 3/3~3/24(4주) 오후 1:30 / 소년부실(3층)

입교 · 세례예식 3/31(주일) 3부 예배시

문의 오광순 안수집사(010.3351.9471)

3.상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일자 3월 8(금) - 9(토)

장소 소망수양관(곤지암)

☎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 114-7100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illegible]